관계부처합동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5.(수) 15:00 배포 2026. 11. 25.(수) 09:00

금융회사가 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「기후금융 관계기관 TF」 제2차 회의 개최 -

- 「전환금융 모범규준」 최종안 발표 -

■ 금융회사가 지원 대상을 판단하고 심사·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**실무기준**인 **「전환금융 모범규준」 최종안**을 발표

■ **금융배출량 플랫폼** 및 **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**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, 해외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**전환금융의 현장 적용방안** 논의

1. 회의 개요

금융위원회(위원장 이억원, 이하 '금융위')는 11월 25일(수)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관계부처, 유관기관, 금융회사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**「기후금융 관계기관 TF」 제2차 회의**를 개최하고, **「전환금융 모범규준」 최종안**을 발표하였다. 또한, 금융권의 참석 범위를 넓혀 **전환금융의 국내 도입방안**에 대한 **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**하고, 금융회사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**전환금융을 본격 공급**하기 위한 **제반 여건을 점검**하였다.

< 「기후금융 관계기관 TF」 제2차회의 개요 >

■ (일시/장소) **'26.11.25일 (수) 15:00 / 정부서울청사**

■ (참석) **(금융위) 금융정책국장**, 산업금융과장 등
(관계부처) 기후에너지환경부, 산업통상부
(유관기관) 금융감독원, 신용정보원, 금융권(은행·금투·생보·손보·여신), **산업계**(석유·철강)
(민간전문가) 이보미 연구위원(한국금융연구원), **오형나 교수**(경희대)

■ (논의내용) **전환금융 모범규준 발표 및 전환금융 현장 적용방안 논의**

2. 주요 논의내용

< ❶「전환금융 모범규준 최종안」 >

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위·금감원·금융권이 함께 마련한 **「전환금융 모범규준」 최종안**을 발표하였다. 지난 2월 발표한 「전환금융 가이드라인」이 지원대상과 기본 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, 금번 **모범규준**은 금융회사가 이를 **개별 사업의 심사와 사후관리**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**실무지침**이다. **3월부터** 금융위·금감원·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**실무 TF**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, **기후부·산업계·금융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**하여 실무사례를 보완한 **최종안을 마련**하였다.

모범규준은 전환금융으로 인정하고 있는 2가지 경로인 ❶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전환과 ❷기업의 전환전략에 따른 전환에 각각 적용되는 **판단기준을 구체화**하고, 심사에 필요한 **증빙자료**와 자금공급 이후 **점검사항**을 제시하였다. 이로써 금융회사가 **어떤 사업을 지원**할 수 있는지, **심사와 사후관리 단계**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**전환금융 판단시 겪어 온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**하였다.

금융위는 앞으로도 **금융회사·산업계**의 **모범규준 적용 사례**와 **현장 의견**을 바탕으로 **모범규준을 지속적으로 보완**해나갈 예정이다. 또한, 산업부가 **「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」**을 발표하면, 해당 내용을 **모범규준에도 반영**할 계획이다.

< ❷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현황 >

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**금융배출량***을 **산정**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**「금융배출량 플랫폼 추진 현황」**을 공유하였다. 금융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**기업이 공시한 배출량**과 **산업별 배출계수** 등의 자료를 한번에 확인하여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**개별적으로 수집하는 부담**을 줄일 수 있다. 신용정보원은 **'27년 중 금융배출량 플랫폼 정식서비스를 개시**하여 **'28년**부터 의무화되는 **기후공시**와 **'31년**부터 최초 공시 대상에 적용되는 금융배출량 등 **스코프3 공시**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* **(금융배출량)** 금융회사가 투자·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거래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

< ❸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수립 현황 >

산업부는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, 정유, 전자조립 **5개 다배출 업종**의 녹색전환을 위한 **업종별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공유**하였다. 로드맵은 업종별 2035 NDC 감축수단을 반영한 **녹색전환 기술·경로, 단·중·장기 추진계획 등을 구체화**하여 녹색전환의 이행방향*을 제시할 계획이다. 본 로드맵에 대해 산업계·관계부처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**연내 로드맵 최종안을 마련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(철강) 수소환원제철 및 저탄소·고부가화를 통한 그린철강 선도국 도약
(석유화학) 전기·무탄소 전환과 바이오·재활용 원료 기반 산업 대전환
(시멘트) 혼합시멘트 고도화 등을 통한 시멘트 산업 저탄소 전환
(정유) 바이오원료·폐자원 기반 제품 생산 확대 및 에너지효율 제고
(전자조립) 초격차 공정기술 기반 선도적 저탄소·고부가가치 전환

아울러, 참석자들은 **해외**(EU·일본)의 **전환금융 운영사례**를 바탕으로, **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전환금융 심사에 활용**하고, 자금지원 이후 **기업의 감축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**하는 절차를 **국내 산업 여건과 금융실무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**을 논의하였다. **전요섭 금융정책국장**은 "이번에 마련한 **모범규준**이 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**자금공급으로 이어지는 것**이 중요하다"며, "금융회사들이 기업의 **전환 수요를 적극 발굴**하고, 이에 맞는 **상품개발**에 힘써달라"고 당부했다. **금융위**는 앞으로도 기후금융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,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위한 **'K-GX(녹색대전환)'**, **'에너지 대전환'** 등 **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**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박재훈	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은	(02-2100-2865)
	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염정섭	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선	(044-201-6690)
	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	책임자	과 장	강은구	(044-203-42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석호	(044-203-4243)
	금융감독원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	책임자	팀 장	황재학	(02-3145-8190)
		담당자	수석조사역	유희재	(02-3145-8191)
	신용정보원 기업금융데이터부	책임자	부 장	엄재철	(02-3705-5939)
		담당자	팀 장	김희태	(02-3705-595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